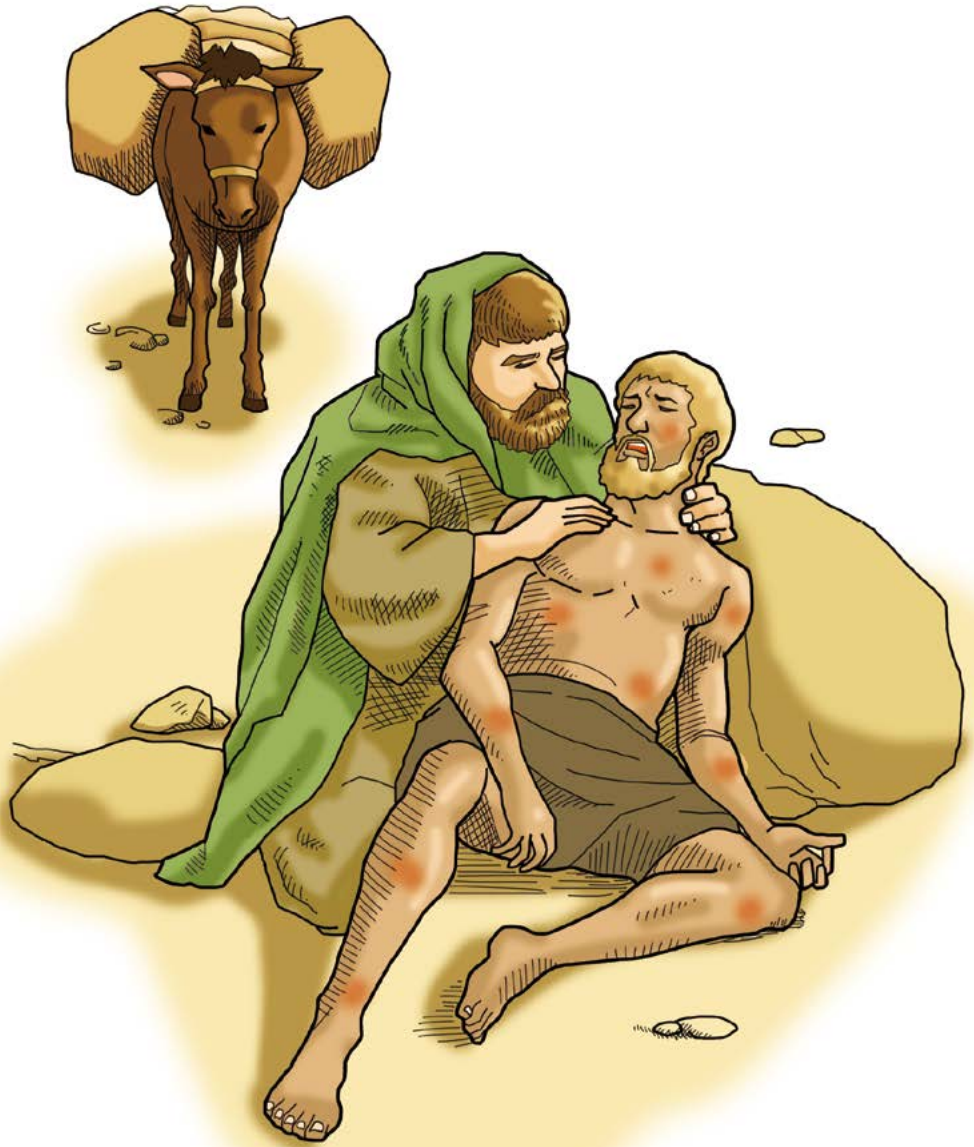


38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25~37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원수처럼 여기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죽게 된 유대인을 보고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율법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네가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배웠느냐?”

율법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맞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물었습니다.

율법사: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 준 사마리아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성경 암송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갈라디아서 5:14)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여 놓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보고는 모른 채하고 피해 갔다.
또 한 레위인도 그것을 보았으나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원수처럼 여겼는데, 한 ¹⁾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죽게 된 유대인을 보고는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집에 데려왔다.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²⁾두 데나리온을 주고 맡기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아주겠소” 하고는 갔다.

예수님: “네 생각에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베드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¹⁾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더럽게 생각하고 무시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여기며 싫어했다.

²⁾두 데나리온: 약 24일 숙박비.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나요? 만난 사람들을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아 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채하고 지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

- ① 죽게 된 사람이 불쌍해서
- ②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으로 착각해서
- ③ 보는 사람이 없어서
- ④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데, 사마리아인 여행객이 유대인을 보고 도와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구해 주고 치료해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누가 우리에게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두 골라보세요.



예수님



부모님



선생님



교회 형제, 자매들



나



이웃 사람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

- ① 형제, 자매들이 이웃이 돼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 ②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요.
- ③ 강도를 만나지 않아요.
- ④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 ⑤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5:12)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적어보세요.

제목: 내 이웃을 _____

내 이웃의 이름 _____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_____

언제 할까? _____

도와주고 나서 느낀 점 _____



예 화

누가 내 이웃인가?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 동네는 사람이 살 곳이 못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무식하고 가난하고 예절도 모릅니다. 또 욕심도 많고 싸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좋은 동네를 찾아 이사 갑니다.”

그 사람이 간 후 다른 사람이 자기 식구를 데리고 그 동네로 이사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삿짐을 푸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불행하게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 볼까 하고 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힘닿는 대로 도우려고 합니다.”

누가 좋은 이웃일까요?



부모님란

선생님란